

제8회 KT&G 상상실현 콘테스트 – 수기 부문

작품 제목
나의 대학생들과 함께한 KT&G 사회공헌 활동
수기작성 (공백포함 5,000자 이내)
<p>*[나에게 KT&G 사회공헌 활동이란?]</p> <p>내 인생은 KT&G 사회공헌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대학생 커뮤니티 상상 univ 를 알기 전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지난 3 년이란 시간 동안 KT&G 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얻었고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누구보다 유니브에서 열심히 활동한 이유는 어떤 대가나 혜택 등의 보상을 받기 위해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다 보니 그 끝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뛰어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활동하면서 많은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며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 누나뿐 아니라 동갑 친구나 동생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며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강한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p> <p>KT&G 의 첫 사회공헌 활동을 경험해 본 것은 매월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현하는 상상 univ 대학생 운영진인 상상발룬티어로 활동하면서 시작되었고, 우수 발룬티어로 선정되어 몽골 해외봉사단의 일원으로 사막화 방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상상프렌즈, 상상마케팅스쿨, 상상실현 콘테스트, 도시 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상상 친구청원제 장학금, 다양한 클래스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KT&G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보다 KT&G 의 사회공헌 활동이 학업에 열중한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준다는 목적이 나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와서가 아닐까? 3 년간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 행복했던 시간을 말해보려 한다.</p> <p>[세상에 아름다움을 전하는 상상발룬티어]</p> <p>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던 나는 이미 정해진 봉사 주제에 내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매월</p>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현하는 상상발룬티어에 지원하여 부산 상상발룬티어 11 기로 활동하게 되었다. 20 명의 발룬티어가 매월 새로운 봉사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만드는 데까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아무래도 봉사 대상자는 사회적 약자이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다 보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의 행동이 자칫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웠다. 첫 번째 봉사활동을 기획하기 전 나는 봉사활동이지만 여태까지 누군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 남들이 봤을 때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려고 했다. 봉사의 본질을 잃고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이때 담당 대리님께서 해주셨던 조언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봉사의 양과 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콘텐츠가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또 어떠냐? 발룬티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본다.” 이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6 개월 동안 우리 20 명의 봉사 단원들은 아름다운 세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레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 정신 지체장애인들과 떠나는 봄 소풍 및 운동회 개최, 범죄율 감소를 위한 야광벽화 봉사, 재활용품을 활용한 가드닝 봉사를 기획하였고 그중 나에겐 ‘수레는 사랑을 싣고’

라는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봉사 전 고물상 주인을 만나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 일을 하며 불편한 일이나 필요한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뿐 이었다. 조사 결과, 어르신들이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폐지를 주로 줍기에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형광 처리된 조끼 제공, 손수레 반사등 설치, 형광 테이프 부착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장 난 손수레 타이어 및 고무 밴드



보수작업을 통해 좀 더 편하게 폐지를 주울 수 있도록 도왔다. 마음 같아선 새로운 손수레를 만들어 드리거나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못 하게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봉사 당일 우리는 한편에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따뜻한 국수를 준비했다. 어르신들이 오면 형광 처리된 조끼를 제공해드리고 식사를 하시는 동안 우리는 수레에 안전장치를 부착하거나 보수작업을 했다. 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생각해도 나의 눈물샘을 자극하게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이른 아침 시간쯤 흰 머리에 허리가 많이 굽으신 할머니께서 고물상으로 출근하시려고 하였고 우리는 오늘의

봉사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며 식사를 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며 우리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셨고 나의 특유의 살가움으로 할머니께 다가가 애교를 부렸다. 형광 처리된 옷을 입혀드리며 식사를 하시던 중 할머니께서 눈물을 보이시며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어...우리 손주 같은 아들, 딸내미들 정말 복 받을 거야 고마워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할머니의 표정과 목소리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이 할머니께 잘 전달된 것 같아 한편으론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렇게 첫 번째 기획봉사를 마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시 한 번 가슴 벅찬 모습을 보았다. 우리가 준비했던 형광 처리된 조끼를 입고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멀리서 봐도 눈에 띄 정도로 빛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안전하게 일하신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고,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남은 봉사활동을 더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해단식이 있던 날 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좀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아쉬움과 매주 수요일 우리 팀원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다.

나는 상상발룬티어를 ‘아름다운 중독’이라 표현하고 싶다. 분명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하지만 끝나고



나면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얻어 가는 느낌 그래서 아름다운 중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그 아름다운 중독에 빠졌고, 운 좋게 우수 발룬티어로 선정되어 몽골 해외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주어져 또 다른 아름다운 중독을 경험하게 되었다.

[희망을 심는 KT&G 몽골 해외봉사단]

나에게 몽골 해외봉사란 인생 최고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다. 좋은 사람들과 14 박 15 일간 노력, 교육, 문화 봉사활동을 통해 열심히 땀 흘리며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결정을 내려준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41 도의 뜨겁고 건조한 날씨, 이른 아침부터 작업장에 나가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량과 숙소로 복귀 후, 교육 봉사를 위한 팀별 회의 그리고 문화 봉사 준비까지 14 박 15 일간 수면 부족으로 피곤함에 절어가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몽골에서 KT&G의 진정한 사회공헌 활동에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는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1 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임농업 교육센터를 짓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정도만 알고는 무작정 삽질과 곡괭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몽골에서 추진 중인 임농업 교육센터 설립과 숲 조성 사업은 범세계적인 환경문제로 퍼지고 있는 사막화 방지는 물론 농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황사 발생량을 감소시켜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은 사막화의 영향으로 9%밖에 남지 않았다. 말의 배에 닿았다는 초원의 풀은 낮게 자라고 흙은 모래로 변해가고 있으며 결국 엄청난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몽골의 사막에서 일어난 황사는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황사의 80%에 달하고 자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몽골 국민은 가축을 모두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여 50 만 명이던 울란바토르에는 100 만의 이주민이 유입되어 현재는 150 만 명이 살고 있었다. 300 만 몽골 국민 중 100 만 명이 울란바토르에서 그나마도 운이 좋으면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2 명의 우수 발룬티어와 11 명의 임직원이 함께 임농업 교육센터 부지에 숲을 조성하고 교육장을 만든 것은 몽골 국민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하여 농업을 부흥하고 그들이 스스로 나무를 심어 사막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몽골에서 KT&G 사회공헌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난 후 나는 천 개의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닌 세계의 희망을 심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 가득 삽질과 곡괭이를 휘둘렀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 봉사를 통해 조별로 준비한 수업을 진행하고 미니 올림픽을 개최하며 몽골 아이들과 온몸으로 소통하였고, 문화 봉사를 통해 각종 공연을 선보이며 마음으로 서로를 느끼게 되었다.

주말, 우리는 엘승타사르헤 게르에서 휴식을 취했다. 별이 미친 듯 쏟아지는 몽골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속에는 항상 KT&G 의 사회공헌



활동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몽골 엘승타사르헤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두 가지 다짐을 하게 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첫 번째 다짐은 내가 받은 KT&G 사회공헌 활동에서의 감동과 사랑을 전국 대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였다. 좋은 건 나누는 거라며 대학생 커뮤니티 상상 univ 홍보 기획단인 상상프렌즈 8 기로 활동하고자 다짐하였고 당연히 합격하게 되었다. 부산 지역 10 개 대학을 돌아다니며 KT&G 사회공헌 활동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대학생들에게 홍보했던 우리 부산 상상프렌즈 8 기는 캠퍼스 어택을 통해 1,900 명의 신규 회원 수를 달성하며

13 개 본부 중 1 위라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의 두 번째 다짐은 내가 받은 KT&G 사회공헌 활동에서의 감동과 사랑을 KT&G 의 구성원으로서 보답하는 것이다. 내가 발로 뛰는 만큼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KT&G 의 영업사원으로서 보답하고자 다짐했고 나는 이 꿈을 꼭 이룰 것이다.



